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KFPA
대한어항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 2층
T. 3673-2851 ~ 4/3673-2856/568-6651
F. 3673-2857 www.fipa.or.kr

[月刊] 第177號 발행점/편집인 孫井植·인쇄인 金在克 ISSN 1227-7053 등록일:1988년2월19일 2002年 9月 25日(水曜日) [1]

2003년도 어촌·어항예산 2,110억원

을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2003년도 어촌·어항예산이 당초 요구액 2,576억 2,500만원의 81.9%, 금년 대비 104.3% 수준인 2,110억 9,300만원 규모로 조정,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가어항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3% 늘어난 1,546억 6,700만원이며, 지방어항은 24억원이 늘어난 274억원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어촌·어항정비 예산은 37억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으며, 어촌민속전시관 예산은 4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어촌종합개발 예산은 209억 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34억 8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어촌체험관광마을은 25억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한국어항협회 보조는 당초 요구액의 92%인 15억 5,600만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에 계속투자 26개항, 신규투자 4개항, 유지보강 31개항 등 61개 국가어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계속권역 22개소, 신규권역 13개소 등 35개소, 어촌민속전시관은 4개소에 계속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자로 미완공 어항을 조기

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 및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54회 일본전국어항어장대회 참석 초청

손정식 회장, 오는 10월16일 도일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사카이스나오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으로부터 10월 17일 일본 후쿠이현 다케후시 소재 선동후쿠이에서 개최될 제54회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받았다.

손정식 회장은 16일 도일, 대회전야 환영리셉션과 전국어항어장대회를 참

관한 후 관내 주요 어항을 시찰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손정식 회장은 이번 전국어항어장대회에서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 및 농림수산대신 수산청장관 등 정부 각료와 각 현 어항관계자들을 두루 접견하고 양국의 어항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2003년도 어촌·어항사업예산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2 예산(A)	2003예산		2002 대비(B-A)		비고
		요구	조정(B)		(%)	
합계	202,301	257,625	211,093	8,792	4.7	
【일반회계】	95,274	135,976	111,153	15,879	16.6	
○ 국가어항	90,130	124,586	105,597	15,467	17.2	계속17개항, 신규4개항 유지27개항
○ 소규모어촌·어항정비	-	3,700	-	0	0.0	
○ 어촌민속전시관	4,000	6,000	4,000	0	0.0	계속4개소
○ 한국어항협회보조	1,144	1,690	1,556	412	36.0	인건비 및 경상비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2,000	4,050	2,500	500	25	
○ 어촌체험관광마을	2,000	4,050	2,500	500	25	10개소
【농특회계】 (전입금계정)	92,614	100,599	80,689	△11,925	△12.9	
○ 국가어항	50,124	44,350	32,319	△17,805	△35.5	계속7개항
○ 지방어항	25,000	30,000	27,400	2,400	9.6	총액예산(11개시·도)
○ 어촌종합개발	17,490	26,249	20,970	3,480	19.9	계속권역22개소 신규권역13개소
【채특회계】	12,413	17,000	16,751	4,338	34.9	(대산청 소관)
○ 국가어항	12,413	17,000	16,751	4,338	34.9	계속2개항, 신규1개항 유지보강4개항
〈어항사업비〉	177,667	219,636	182,067	4,400	2.5	
○ 국가어항	152,667	185,936	154,667	2,000	1.3	계속30, 유지31개항
○ 지방어항	25,000	30,000	27,400	2,400	9.6	총액계상예산사업
○ 소규모어촌·어항정비	-	3,700	-	0		

해양수산부 수해지역 바다 쓰레기 긴급 수거

해양수산부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내륙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3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에 수해가 심한 부산, 경남, 강원 지역에 항만·어항 청소선 25척을 투입하는 한편 지난 7일에는 지방청 소속 직원 2천여명을 동원해 연안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유입된 쓰레기가 대부분 냉장고,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폐 목재가 대부분인데다 발생량도 17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대규모 생활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된다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어항협회 사무실 이전

종로구 인의동 인의빌딩으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동대문경찰서 앞)으로 사무실을 이

전했다. 회장실과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는 13층, 임원실과 사무실은 2층을 사용한다.

변경주소	☎ 110-78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 2층		
전화번호	구분	종전	변경
	회장실	568-6651	(전과동일)
	임원실	568-6652	3673-2856
	대표전화	3673-2851~4	(전과동일)
	FAX	568-6653	3673-2857

별서 15년 가까이 지난 어항공사 계약제도와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거 이 제도가 도입될 때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돼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당시 서슬 푸른 부정부패 청산이란 미명하에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 제도가 최근 새삼 이슈로 떠오른 것은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명쾌한 해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달라진 세상'이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기인한다.

예를 들자면 지방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 지정됐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발주기관이 달라진다. 이 경우 지방어항공사를 수행한 시행자가 그 국가어항의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참으로 우문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발주기관은 모두 정부 행정기관이지만 시공사는 여전히 같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는 어항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처가 달라졌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공사의 시공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수한 어항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가 대부분 중소건설업체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10년, 혹은 20년이 걸리는 공사를 위해 석산개발을 비롯하여 그동안 준비 해온 각종 시설물들이 단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발주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무시한 일종의 행정편의주의로 비취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건설업체인 시공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씨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어항공사에서 일정한 한도내에서는 수의계약이 왜 불가피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설명해 왔지만 요점만 간단히 간추려 보자.

지방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됐을 때

비록 발주기관이 달라졌다고 하나 공사의 본질은 동일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집행해 온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당연히 하자관계에 큰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경우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이용자인 어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는 이미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공사를 내다보고 석산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할 경우 시공업체 도산은 물론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어항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역시 이미 발주기관의 철저하고 엄격한 수의계약 평가기준 검증을 마친 업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하고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지금 현실이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혹시 이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철저히 해두자는 의도가 있음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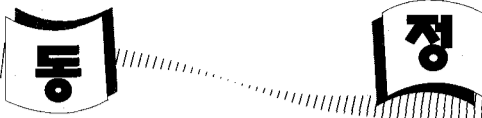
그러나 이 해묵은 논쟁의 궁극적 피해자를 머리에 떠올린다면 관계기관의 전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결국 피해자는 이용자인 어업인이 아니면 시공사인 중소건설업체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조달청의 입장은 수요부처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어항공사의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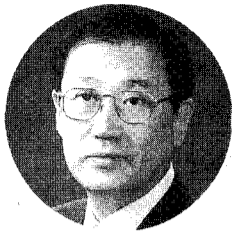
계약에 관한 제도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바에는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낭비를 막고 그 여력을 대국민 봉사로 돌릴 수 있는 기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항공사 계약의 불합리성



태풍피해지역 순시 피해어업인을 격려



金昊植 해양수산부 장관

▲김호식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에 참석, 4일에는 우지 마노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7일에는 제주지역 태풍피해현장을 순시, 12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14일에는 국립수산물학원 수산공학수조동 준공식 및 태풍피해지역을 순시하고 피해어업인을 격려, 16일에는 가나 수산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수산현안에 대해 논의, 18일에는 가락동 수산시장을 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23일에는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을 방문.



孫井植 한국어협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협협회장은 9월4일 한국수산경제신문 창간기념행사에 참석, 5일

에는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개발론을 강의, 이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당창당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토론회에 참석, 6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0기 경기도지역회의에 참석, 이어 '지식정보화와 미래정부모형'에 대한 한국행정학회 기획심포지엄에 참석, 11일에는 해성회 간담회에 참석, 12일에는 '최근 북한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 참석, 13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찬양선교의 밤 행사에 참석, 16일에는 밝은사회서클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17일에는 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 '차기 정부 구조개혁의 중점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 19일에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27일에는 해양연맹 이사회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9월1일부터 6일까지 충남 경남 강원지역 태풍 루사피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어업인을 격려, 12일에는 국회재해대책위원회와 전남지역 태풍 피해현장을 방문 현황보고를 받고 수재민들을 위로.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9월4일 제6회 임방울국악제를 개최, 9일에는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광주지구협의회 2002년 한마음대회 및 실무교육에 참여, 14일에는 화천기공자전발전 기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8일 북한 축구대표단 환영만찬에 참석, 10일에는 자유총연맹 간담회에 참석, 12일에는 전경연회장단 증진회원 간담회에 참석, 18일에는 칠레 국가의날 행사에 참석, 26일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사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7일 제3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9일에는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광주지구협의회 2002년 한마음대회 및 실무교육에 참여, 12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제38차이사회에 참석, 13일에는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주주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에 참석, 13일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간담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2일부터 12일까지 2010세계박람회유치와 관련 미국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이용기

□국장급 전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이상문 □과장급 승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장 최익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장 최명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박원길 □과장급 전보 △항만국 항만정책과장 윤병구 △항만국 항만건설과장 양태운 △항만국 기술안전과장 조종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분석과장 서장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김영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신명 △해양수산부 근무 송만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근무 김동주 (9월9일) □부이사관 승진 △항만정책과장 윤병구 △양식개발과장 김영환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성범 △항만정책과 이희영 △항만정책과 문희선 △항만건설과 박운순 △

수산정책과 홍종욱 △어업기술인력과 최철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문철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이원태(9월19일) ▲한국어협협회 △어항902호 선장 김용익(9월1일)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 (회장 심찬구)

■개인 ▲안중철씨(전 수협중앙회 부회장)

협회사무실 이전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 ▲김재국 (주)문원사 회장 ▲김한호 셋사랑화원 사장 ▲박성욱 한국해사위협물검사소 소장 ▲박종국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박종식 한국수산물협회 회장 ▲삼성제일빌딩관리단 임직원 일동 ▲안익성 한국종합기술공사 이사 ▲이동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이선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원장 ▲임종국 (주)한국수산신보사 사장 ▲장경남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가나다 순)

주 소 변 경

▲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손일수)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번지 건일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외 비 납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이호훈) ▲주식회사부흥(사장 이상천) ▲주식회사삼양사(사장 염민웅) ▲주식회사새건설(회장 조홍제)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언)



■손정식 한국어협협회장은 9월3일 2002년도 어항어촌 장학생 26명을 선발, 전남 신안군 압해종합고등학교, 전남 완도군 완도수산고등학교, 충남 보령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

日本, 2003년도 수산공공예산 요구 2454억 5900만엔 전년대비 115.2%

일본 수산청은 8월 27일의 자민당 농림수산부회 등의 심의를 거쳐 8월31일 일반회계총액 3,615억 9천만엔(전년대비 116.9% 증)의 2003년도 수산예산 개산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 공공예산은 2,454억 5천9백만엔(115.2% 증)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의 방침으로는 일반 공공예산은 전년대비 97%로 상정하고 있어 연말의 예산편성을 향해서 냉엄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예상되는바 관계자의 일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요구개요는 아래와 같다. 환경창조형 수산기반정비 사업의 강력한 추진 요구서에 의하면 2003년도 수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요구는 2,289억 8천8백만엔으로 전년대비 1.152배로 비공공사업과 연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풍요로운 연안 역의 환경창조」 「활력 있는 어촌의 형성」을 향해서 환경창조형 수산기반

정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중점사항은 다음의 4항목이다. ①안전하고 안심한 수산물 공급체제의 구축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안심한 수산물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항에서의 위생관리대응형 연안과 어장에서의 오니(汚泥) 등의 준설을 추진 • 먹거리의 안전대책상 세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공공사업을 창설 ②수산업의 구조개혁 • 어협합병·산지시장의 통합 등을 지원하는 기반 만들기 추진 • 자원회복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휴어 어업자를 어장환경보전조사사업에 참가시키는 계획구상과 함께 어장환경의 정비를 추진 ③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共生對流)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 지역의 발상을 증시한

활력 있는 어촌 커뮤니티만들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어업집락배수시설, 친수공간의 정비, 어촌의 IT화 등을 추진 • 도시어촌교류상 세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공공사업을 창설 ④자연과 공생하는 풍요로운 연안지역환경의 창조 • 해조장(海藻場)·간석지 등의 조성 등에 의한 「풍요로운 바다숲 만들기」나 가리비·굴잡질 등의 수산계 부산물, 집락배수오니(汚泥) 등의 재이용화를 추진 신규비공공사업의 창설 공공사업의 요구범위의 재원을 일부활용하여 「안전·안심한 수산물의 공급체제의 구축」 및 「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에 의한 어촌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하의 비공공사업을 창설한다. ①안전·안심한 수산물의 공급체제의 정비 • 고도위생관리형 수산물공급시설 모델사업(13억 5천만엔)

어항에서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위생관리를 실현하는 하역시설 등의 정비 • 「먹거리의 재생지원」어항어촌활성화사업(7억 5천만엔) 어항 등에서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위생관리·브랜드화를 통한 먹거리의 재생지원을 위한 시설의 정비 ②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 신어촌 커뮤니티의 기반 정비사업(8억엔) 도시주민에게도 매력이 있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는 어촌 만들기를 위해 지역주민 등도 참가한 새로운 시점에서 체험학습시설을 비롯한 어촌의 생활·교류·정보기반을 구축 어항해안정비의 추진과 새로운 장기계획의 책정 어항해안사업에 대해서는 158억 7천만엔(전년대비 1.164)이다. 신규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해안만들기」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도에 기한이 끝나는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각에 근거 2003년을 첫해로 하는 장기계획을 요구.

2003년도 수산예산 개산요구의 개요 (백만엔)

구 분	2002년도 예산액	2003년도 개산요구	전년대비 (%)
일반회계합계	309,198	361,590	116.9
비공공	96,127	116,131	120.8
공공(계)	213,071	245,459	115.2
일반공공	212,464	244,859	115.2
수산기반정비	198,829	228,988	115.2
어항 해안	13,635	15,871	116.4
재해 복구	607	600	98.8

2003년도 수산관계 공공사업 개산요구의 개요 (백만엔)

구 분	2002년도 당초예산액	2003년도 개산요구액	전년대비 (%)
공공사업계(a+b+c)	213,071	245,459	1.152
수산관계공공사업(a+b)	212,464	244,859	1.152
수산기반정비(a)	198,829	228,988	1.152
수산물 공급기반정비	164,910	190,206	1.153
수산자원 환경정비	2,511	3,499	1.393
어촌종합정비	20,779	24,655	1.187
수산기반정비조사	752	752	1.001
보조율 차액 등	8,136	8,166	1.004
어항관련도정비(보조율 차액포함)	1,741	1,710	0.982
어항해안(b)	13,635	15,871	1.164
해안보전시설정비	9,078	11,023	1.214
해안환경정비사업	3,704	4,007	1.082
공유지 조성호안 등 정비사업	83	73	0.880
조사비 등	770	768	0.997
재해복구(c)	607	600	0.988
NTT-A	325	25	0.077

어항어촌지역 수산계고교 장학생 26명 선발

한국어항협회 2002년도 장학증서·장학금 수여 압해종고 9명, 완도수고 10명, 충남해양과학고 7명

한국어항협회는 9월3일 2002년도 어항어촌지역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 전남 신안군 압해종합고등학교 수산양식과 3학년 김미선의 8명, 완도수산고등학교 자영수산과 2학년 박수열의 9명, 충남 보령시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 동력기계과 3학년 박종범 외 6명 등 총 2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어항시공업체 및 전국어업인후계자 자녀 중 수산계고등학교 및 수산관련학과가 개설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을 의뢰, 심사를 거쳐 모두 26명을 선발하여 각 학교장을 통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

달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사양화되어가고 있는 수산분야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어항시공업체 임직원 자녀 및 우리나라 수산업을 짊어지고 갈 어항어촌 지킴이인 어업인후계자 자녀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도 어항어촌장학생 명단〉

□전남 신안군 압해종합고등학교 △김미선(수산양식과 3학년) △권희진(“ ”) △손은혜(“ ”) △박수현(“ ”) △천수정(“ ”) △김선애(“ ”) △김태영(자영수산과 1학년) △박진홍(“ ”)

□전남 완도군 완도수산고등학교 △박수열(자영수산과 3학년) △박장환(“ ”) △정다운(“ ”) △최송희(식품가공과 3학년) △신애진(수산전산과 3학년) △김광진(동력기계과 3학년) △정승호(해양생산과 3학년) △문 강(수산전산과 2학년) △최 진(자영수산과 2학년) △윤인범(냉동공조과 2학년)

□충남 보령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박종범(동력기계과 3학년) △전진환(“ ”) △한용운(“ ”) △김의동(“ ”) △원정현(해양생산과 2학년) △한호빈(냉동공조과 1학년) △강학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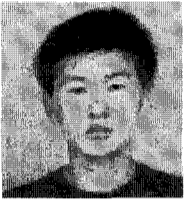
△ 김미선



△ 권희진



△ 손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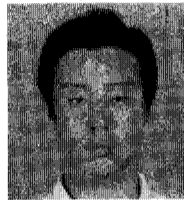
△ 박수현



△ 천수정



△ 김선애



△ 강성덕



△ 김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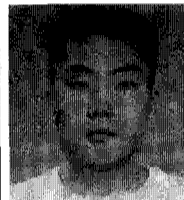
△ 박진홍



△ 박수열



△ 박장환



△ 정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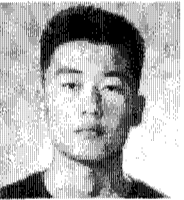
△ 최송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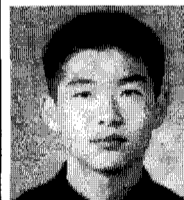
△ 신애진



△ 김광진



△ 정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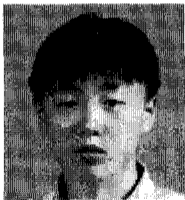
△ 문 강



△ 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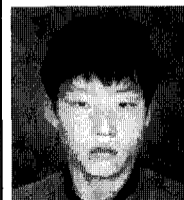
△ 윤인범



△ 박종범



△ 전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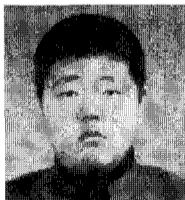
△ 한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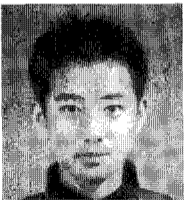
△ 김의동



△ 원정현



△ 한호빈



△ 강학수

군산 비응항, 위락형 친수어항으로 개발

군산 비응도에 총 1천 178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위락형 친수어항건설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주)서해피서리나와 군산 비응항을 위락형 친수어항으로 개발하는 안을 협상중이며 올해안에 협약서 체결 등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후 실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민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비응항에는 44만

m²의 부지가 조성되는 한편 물양장 1천200m와 7층 규모의 호텔겸용 여객터미널 1개동, 냉동창고 1개동이 갖추어져 위락형 친수어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비응항은 국가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며 개발이후에는 현재 금강 하구둑 건설 등으로 각종 선박의 입출항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산내항의 대체항구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신형 이형블록 하프록 개발

방파제 안벽 등 항만구조물의 중간 피복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이형블록 하프록(Half-loc)이 개발돼 현장에 시공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자연석을 대신할 수 있는 중간피복용 이형블록의 설계 및 시공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이형블록 하프록은 현재까지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 축조시 중간 피복석 재료로 주로 사용돼 왔던 자연석을 대체해 항만공사에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항만 물동량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항만은 대수심쪽으로 전진 배치되는 추세며 이러한 건설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연석 대신 중량이 큰 중간 피복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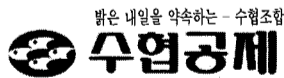
특히 이 하프록 공법은 축조시 파랑에 대한 안정성이 기존의 자연석 보다 우수하고 재해발생 이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석채취에 따른 환경 훼손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공법의 성격도 갖춰 향후 항만공사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항청소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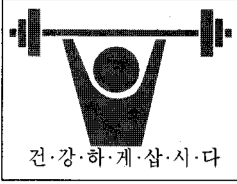
10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10. 7~12 10.21~26	연도 군산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어항 902호	10. 7~12 10.21~26	서망 목포	김용익	(휴대폰) 011-243-5590
어항 903호	10. 7~12 10.21~26	내발 녹동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어항 904호	10. 7~12 10.21~26	임포, 돌산 국동	박주중	(휴대폰) 011-232-5596
어항 905호	10. 7~12 10.21~26	통영연안 광암, 성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어항 906호	10. 7~12 10.21~24	읍천 포항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어항 907호	10. 7~12 10.21~26	금진 사천	최일선	(휴대폰) 016-661-5597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모르게 버린 오물 우리모두 앞장서자 남모르게 오는 피해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환절기 건강관리

-有備無病-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난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해져 자칫하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바이러스성 감기를 비롯해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건조증 등 각종 환절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우리 몸도 주변환경에 적응하느라 혼란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철에 유의해야 할 질환들의 예방법을 알아본다.

◇바이러스성 감기=감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으레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이지만 증상이 가볍고 대부분 저절로 낫기 때문에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폐렴, 결핵 등 합병증을 불러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주도록 하며 평소 수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많이 든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만성적인 호흡기질환자는 9~11월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아 겨울철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가을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는 고통의 계절이다. 여름 동안 잠시 잠복했던 코 간지러움

증, 콧물, 재채기 등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로 양탄자나 담요 밑에 사는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의 비듬과 털 등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집먼지를 제거하고 찬 공기나 급격한 온도변화, 담배연기, 방향제, 스프레이 등을 피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며, 재채기나 콧물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같은 약물도 도움이 된다.

◇피부건조증=습도가 낮고 건조해지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약화돼 지방분비가 적어지고 수분 증발로 인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건조증이 나타나기 쉽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피로회복 차원에서 매일 뜨거운 온탕목욕이나 사우나를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부보호막을 손상시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목욕수는 1주일에 1~2회 샤워가 적당하고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문질러대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목욕 후에는 기름기 있는 로션이나 오일을 몸에 바르는 것이 좋고 손, 발바닥이 갈라지는 증상에는 연고나 영양크림을 발라 주면 효과가 좋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70)

第5章 콘크리트

해안가사이의 우물물에는 염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일이 많다. 부득이 염화물을 많이 함유하는 우물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 이하의 재료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도 고로하여 콘크리트내의 염화물 총량이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넘지 않음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오염 우려가 있는 물을 사용할 경우, 수질분석과 함께 청정수(증류수 또는 상수도수)와 시험수를 사용하여 시멘트의 의결시간 및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시험을 하고, 그 차 또는 비율에 따라 사용의 적부를 판단하는 일도 있다.

(4) 골재
콘크리트 체적의 약 70%는 골재이다. 골재의 품질이 콘크리트의 성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양질의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고, 강도가 크며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정도가 좋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조골재의 최대치수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5.2.2를 표준으로 한다.

② 골재의 정도
세골재 및 조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를 적당하게 혼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표 5.2.3 및 표 5.2.4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정도의 측정은 배합설계전 및 품질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표를 제출케 한다.

③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골재중에 있는 불순물이 함유량이 상으로 혼입되면 시멘트 수화반응의 조해, 단위수량·워커빌리티·블리딩량·의결속도 등 프레스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동재의 부식촉진 등 콘크리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세골재 및 조골재에 함유되는 유해물 함유량의 제한치는 표 5.2.5, 표 5.2.6과 같다.

표 5.2.2 조골재의 최대치수

종 류	조골재의 최대치수
철근콘크리트	부재최소치수의 1/5 및 일반의 경우 20 또는 25mm, 단면이 철근의 최소수평간격의 3/4를 넘지 않는다.
무근콘크리트	부재최소치수의 1/4를 일반의 경우 40mm를 표준으로 한다.
포장콘크리트	대체로 40mm이하로 한다.
덤프콘크리트	대체로 150mm정도가이하로 한다.
경중골재콘크리트	대체로 15mm 또는 20mm로 한다.

표 5.2.3 세골재의 입도 표준

체의 공칭치수(m)	체를 친 것의 중량백분율(%)
10	100
5 (No.4)	90~100
2.5 (No.8)	80~100
1.2 (No.16)	50~90
0.6 (No.30)	25~65
0.3 (No.50)	10~35
0.15 ¹⁾ (No.100)	2~10

주) 1) 바순모래 및 고로슬러그쇄사는 2~15로 해도 된다.

표 5.2.4 세골재의 입도 표준

조골재의 크기(mm)	체의공칭 치수(mm)	체를 친 것의 중량백분율(%)									
		60	50	40	30	25	20	15	10	5	2.5
50~5	100	95~100	-	-	35~70	-	10~35	-	0~5	-	-
40~5	-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	-	100	95~100	-	40~70	-	10~35	0~10	0~5	
25~5	-	-	-	100	95~100	-	30~70	-	0~10	0~5	
20~5	-	-	-	-	100	90~100	-	20~55	0~10	0~5	
15~5	-	-	-	-	-	100	90~100	40~70	0~15	0~5	

표 5.2.5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중량백분율)

점 토 덩어리	종 류	최대치
씻기시험으로 잃은 것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멸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1.0 ¹⁾ 3.0 ²⁾ 5.0 ²⁾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경우 기타의 경우	0.5 ³⁾ 1.0 ³⁾

*1) 시료는 KSF 2511에 의한 골재씻기시험을 한 후에 체에 남아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바순모래 및 고로슬러그쇄골재의 경우로 씻기시험으로 잃은 것이 석분이고 점토, 실트 등을 함유하지 않을 때는 최대치를 각각 5% 및 7%로 해도 된다.
*3) 고로슬러그쇄골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정보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 — 오래 보유한 집 팔수록 '2주택' 양도세 적어져

정부가 9·4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441개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를 평균 17.1%올리는 등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팔 때는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세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세테크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 9·4 안정대책에 따른 양도세 절세 전략

9·4 안정대책에서 나온 양도세 관련 부분은 서울과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와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과 관련 보유기간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을 넘긴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고급주택 분류기준이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로 강화된다. 고급주택은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1년 이상 그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양도세를 면제

이 같은 내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의 남양주, 화성, 고양, 인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적용시점은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을 마련하는 이달말 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먼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남에게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경우 등은 3년 이상 보유기간만 채우서는 안되고 1년 이상 그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아파트를 양도해야 거주요건의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그 이후까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이전보다 커지긴 했지만 기준시가는 여전히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이기 때문에 과세가

새로운 세테크 전략

준 강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이전에 비해 양도가액이 40% 이상 늘어난다.

◆ 기준시가 인상에 대비한 전략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의 기준시가 인상조정은 발표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틈새를 이용하면 절세전략이 보일 수도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오래 보유한 집을 팔수록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양도 유예기간도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가구 2주택자라도 두 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한 지 3년 이상된 주택을 팔면 주택처분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이달말 이후 매도할 경우에는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혜택' 전략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분양계약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되팔 때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자칫 엄청난 세금을 내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염려할 것은 없으며, 무주택자는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보유자도 임대사업 등을 하다 되팔 때 업무용 시설로 신고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양도세 적용여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을 적용 받지 않는다.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함께 소유한 사람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주거용이라고 주장해 굳이 1가구 2주택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이 1가구 2

주택이 적용돼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업계 일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모두 1가구 2주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무주택자는 오피스텔을 산 뒤 3년 후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했다라도 세금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업무용이건 주거용이건 세율에 차이가 없다.

◆ 기존 주택보유자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을 팔 때 업무용 시설로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오피스텔을 산 지 1년 내에 팔면 양도차익의 3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1년 뒤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을 매긴다. 임대사업을 한 경우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업무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준비해 두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생활정보